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시사점



하 병 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최근 들어 세계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같은 기술혁신에 힘입어 20세기 말에는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여 왔던 미국 경제가 21세기 들어 경기 후퇴기로 접어들어 세계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증권시장도 미국 경제의 후퇴와 이에 따른 미국 증권 시장의 하락으로 동시에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동시에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도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미국 뉴욕 테러사태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 한다. 미국 증권 시장이 회복되고 유럽, 아시아국가들의 증권시장도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다. 세계 경기가 동시에 움직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미국 증권시장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무척이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위 세계화 현상의 하나이다.

세계 경제의 변화는 경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등 우리 기업을 비롯하여 각국 기업이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다. 경제력의 중심이 일이십년 내에 중국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신하여

■ 目 次 ■

1. 서론
2.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정립
3. 경제력 구조의 변화
4. 기업 세계화의 진행
5. 전망과 시사점

중국경제가 경제대국으로 부각하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질서를 재정립하는 뉴라운드 가 시작됨으로써 국제무역에 관한 새로운 룰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년 전에 무산되었던 뉴라운드의 출범에 합의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중국의 세계경제무대 진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금년 들어 세계 경제와 통상에서 많은 변화 혹은 사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다.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갑자기 느껴지거나 인식할 따름이다.

국제통상환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으나, 국제경제질서의 정립, 국제경제력 변화, 세계화의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경제질서의 정립은 국제 규범의 제정을 통하여, 그리고 국제경제력의 변화는 시장과 공급자의 변화의 변화로, 그리고 세계화는 기업 및 국가의 행태 변화로 이어져 통상환경을 변화시킨다.

2.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정립

내년부터 20세기 초반의 국제통상질서를 규정하는 규범 제정 작업이 시작된다. 소위 뉴라운드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1월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출범이 공식화되었다. 뉴라운드 협상의 공식명칭은 “도하개발아젠다”협상으로 결정하였다. 이년 전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무산되었다가 이번에 합의를 도출하게 된 것이다. 협상하게 될

의제 및 내용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는 등 갈등도 있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년 전 실패하였던 뉴라운드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적어도 대다수의 국가가 무역자유화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 서비스 그리고 여타의 국제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한다는 사실에 전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2000년 들어 미국 경제를 위시한 세계경제의 동시적인 후퇴로 세계 각국은 경기 회복의 활로를 모색하게 되고 그 결과 뉴라운드의 출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은 2002년부터 3년 간 진행되어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할 것을 각료회의 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다. 과거의 다자간 협상의 예로 보아 2005년 1월 1일에 협상이 완료될지는 의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도 이해당사국간의 의견차이로 수차에 걸쳐 협상이 지연된 바가 있다.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한 이후 2년 반만에 겨우 합의가 이루어진 점도 이러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WTO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협상이 과거와는 달리 더 효율적이고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

하지만, 뉴라운드의 효과는 벌써 국내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추곡 수매가 인상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바로 이 뉴라운드와 직결되어 있다. 양곡유통위원회가 뉴라운드로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 하에서 국

제 쌀값보다 훨씬 높은 국내 쌀값을 낮추기 위해 추곡수매가 인하를 건의하면서 발발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작될 뉴라운드에서는 농업, 공산품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뿐만이 아니라 반덤핑 및 보조금의 규범 개정, 개도국 지원의 이행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다. 또한,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의 투명성, 전자상거래,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이년 간 검토를 거쳐 2003년에 개최되는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협상할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의 경우 시장 개방의 확대,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국내 보조금의 실질적 감축 등이 3가지 협상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추곡 수매가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한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주제이다. 각종 농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불가피하여 외국 농산품이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품의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다룰 예정이다. 일정 수준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품목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 과거의 예로 보면, 관세인하는 과거에 약속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자동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의류 등에 대한 높은 관세도 시정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류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들의 경우 공산품의 관세율이 0%에 접근하지만, 의류, 신발 등과 같이 자국의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20% 내외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뉴라운드에서 이러한 고관세의 인하가 협상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한 협상은 2000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뉴라운드에서

〈표 1〉 뉴라운드의 협상 의제

| 의 제 | 양허안 제출 및 특기사항 |
|--|---|
| 농업, 서비스 분쟁해결양해 비농산물 시장접근 TRIPS WTO규범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환경(무역장벽감축, MEA·WTO 정보교환) | 5차각료회의(농업), 2003년 3월(서비스) 2003년 5월(개선 및 명료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이익 고려 TRIPS와 공중보건은 특별선언문 채택 규정을 명확화하고 개선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 제고 |
|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투자, 경쟁정책 |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 개시 |
| 전자상거래, 환경(CTE의제), 무역·부채·금융 소규모경제 등 개도국 관련사항 | 5차 각료회의 보고사항 검토 작업대상 |

자료: 최낙근, 2002년 국제통상환경 전망, 2001.11, 전경연 세미나자료

는 협상 진행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개방이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2003년에 협상을 시작할 지 여부를 결정할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등의 주제는 새로운 이슈로 국제적인 규범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논란이 많은 분야이다. 향후 개시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현존 WTO 규정에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초보적이고 원론적인 사항이라 각국의 정책 시행 등을 크게 구속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협상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결국은 서비스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마련한 과거의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주제에 대한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 개최된 국제 다자간 협상이 주로 공산품의 관세 인하를 다룬 데 비해 이번 라운드의 주제는 더욱 광범위하다는데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국제무역규범은 상품, 서비스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직접적인 대상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다른 국가의 검토 대상이 되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점차 국가의 독립적인 권한이 축소되고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광범위한 의제로 출발한 뉴라운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의나 효과는 어떠한가?

일단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반덤핑규정의 개정, 관세인하 등으로 무역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무역 증대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외국의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의 만족도도 커질 것이다. 게다가, 국제 무역 자유화로 세계경제가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올 경우 수출증대로 우리 경제의 성장 또한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일부부문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농업, 서비스산업 등과 같이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서는 벌써부터 타격이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시장의 개방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데다 보조금 등과 같이 국가의 지원책도 축소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협상이 단기간에 종결되지 않으며, 협상이 종결되더라도 협상결과인 관세인하, 보조금 철폐 등의 조치가 3년 혹은 5년과 같이 일정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효과가 즉각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가와 같이 국제가격과 차이가 크거나 혹은 제도수정과 같이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면 그 효과는 협상타결 이전인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농업, 서비스산업과 같이 부정적인 효과를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문이 있는가 하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같이 그 효과를 예상하기 힘든 부문도 있다. 특정 제품의 수입이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규제 등으로 수입되지 못하다가 협상의 결과로 수입이 가능한 경우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당시 빗자루 등의 잡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멕시코산의

수입으로 도산에 직면한 사실을 호소한 예가 그것이다. 국가장벽으로 이익을 보고 있던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예이다. 역으로 수출하지 못하다가 수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뉴라운드의 이러한 효과는 기업 및 관련 산업의 부침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국가경제에서 고용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새로운 사업이나 고임금 직종의 기회가 생기는 반면 실업의 가능성도 사실이다. 70년대나 80년대와 같이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대에는 이러한 조정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이제 저성장의 시대에는 경제나 개인에게 적지않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3. 경제력 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경제력 구조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쇠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관한 소식은 우리나라의 경쟁상대로서 거의 매일 신문이나 방송의 주제로 채택될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다.

중국은 GDP가 2000년 현재 1조 8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G7에 중국을 포함시키고 다른 국가

를 제외하여야 할 지도 모르겠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 1997년에 이미 미국의 0.6배, 그리고 우리나라의 7배 수준에 달한다고 하니, 중국이 시장 규모 면에서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90년대에 들어와 빠르게 성장하여온 결과이다. 90년대 후반에 기록한 연평균 성장률 8.3%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달성한 것으로 중국의 성장잠재력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하는 수치이다. 중국의 대외무역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수출입 합계 4,743억 달러로 1990년의 16위에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세계 시장에서 공급자의 위치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주변국가의 우려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과 이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다. 중국은 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미국 다음으로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나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활발한 다국적 기업의 유입은 다른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표 2〉

구매력평가 기준에 의한 중국의 GDP

단위 : 10억 달러

| 1997년 | 미국 | 중국 | 일본 | 한국 |
|---------|-------|-------|-------|-----|
| (구매력기준) | 7,690 | 4,383 | 2,951 | 621 |
| (환율기준) | 8,318 | 882 | 4,316 | 477 |

자료 : 日本經濟研究 センター, 「2020年の中國」, 2000. 3. 신태용, 중국경제의 국제적 부상과 중장기 전망, 2001. 11.26에서 재인용.

〈표 3〉

세계 주요국 GDP 전망

단위 : 10억 달러 (1990년 기준)

| |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이태리 | 영국 | 중국 | 한국 |
|-------|-------|-------|-------|-------|-------|-------|-------|-----|
| 2000년 | 8,062 | 3,489 | 1,991 | 1,449 | 1,281 | 1,236 | 998 | 457 |
| 2006년 | 9,520 | 4,018 | 2,313 | 1,690 | 1,473 | 1,436 | 1,546 | 644 |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001, 2/4분기.

신태용, 중국경제의 국제적 부상과 중장기 전망, 2001. 11.26에서 재인용.

직접투자의 유입을 저해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이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과 이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자국내 생산 활동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경제 부상의 한 요인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 내에서 일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도 중국 산업의 부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어 2006년에는 GDP 규모가 세계 제5위로 부상할 것으로 미국의 전망전문기관인 WEFA가 예측하고 있다. 2006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큰 규모로 커진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발전기획위원회는 2010년에는 세계 제4위, 그리고 2020년에는 세계 제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결국, 중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세계 경제력 구조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소비 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품의 공급 능력 면에서 모두 크게 성장함으로써 세계경제질서나 환경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WTO가입은 경제력에 더하여 국제기구나 협상테이블에서 중국의 입김을 강화하는 계기

로 작용할 것이다.

비단 중국 경제력의 부상만이 세계 경제력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국들이 자유무역지대(FTA)와 같은 지역협정을 통하여 경제통합을 기도하면서 국가 단위에서 나아가 지역단위의 통합된 경제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협정이란 WTO의 다자간 협정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소수의 국가가 참여하고 참여국 간에 관세 등 경제행위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참여국을 차별화하는 배타성을 지닌다. EU는 경제적인 지역협정이 발전하여 정치적인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다자간 협정이 다수의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혜택을 향유하는데 반해 지역협정에 소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U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대표적인 지역협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지역협정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현재까지 GATT/WTO에 통보된 지역협정 중 현재에도 유효한 협정이 155개에 달한다. 특히,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도 90개의 협정이 통보됨으로써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일본도 금년 10월에 싱가포르와 지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중국도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1998년 이후 추진하여 오고 있고, 일본과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각국이 지역협정을 두고 마치 경쟁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협정의 숫자만이 아니라 지역협정이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나가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EU는 로마조약 당시인 57년에는 프랑스를 비롯한 6개 회원국에 지나지 않았으나, 4차례에 걸친 확대과정을 거쳐 이제는 15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국가들의 가입이 추진되고 있다. 가입협상이 현재 진행중이고 2004년부터는 가입이 실행될 전망이다. 이 경우 유럽시장은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유로화의 유통으로 기존 회원국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데 더하여 규모자체도 확대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범미자유무역지대(FTAA)의 형성, 우리나라, 일본, 중국 및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등 기존 지역협정의 통합 혹은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띄고 있다고 하겠다.

지역협정의 확산이 미치는 효과나 의의는 어떠할까? 우선, 지역협정은 참여한 국가 간의 교역을 증진시킴으로서 참여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렇지만, 지역협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국가 및 그 국가의 기업은 거래 환경 및 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관세이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정에 참가한 국가의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거래의

배타적인 차별화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앞 다투어 지역협정 체결에 관여하거나 기존 협정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 호조건은 잦은 거래를 유발하고 이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교류와 연대를 유발함으로써 국제대형거래뿐만이 아닐 국제협상에서도 상호 협력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거래를 유발하는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협정은 개별 국가가 아닌 집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대표성을 가짐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EU의 경우 각국이 각각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EU집행위가 공동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킨다. 각종 국제무대에 EU 회원국은 물론 EU집행위가 참여하고 있다. EU라는 거대시장 및 경제력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과거 미국과 유럽의 통상분쟁에서 개별국가가 아니라 EU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협정이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지역협정의 통합과 합산은 국제통상문제 해결과정에서 협상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기업 세계화의 진행

국제통상을 영위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거꾸로 기업의 행태는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새로운 국제규범의 제정도 기업의 요구나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기업 활동의 결과로 국가경제의 경제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세계화는 국제통상환경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세계화란 수출입, 기술이전, 자본 및 경영자원의 이전을 포함하는 직접투자 그리고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경제 행위를 영위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의 세계화 전략은 단순한 수출입에서 벗어나 직접투자나 전략적 제휴를 심화시키는 단계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업 혹은 전략적 제휴기업과 관련하여 수출입을 영위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무역협상이 상품 수출입에서 서비스업으로, 관세 위주에서 국제규범, 투자규범, 경쟁 등으로 의제가 확대된 것은 기업 세계화의 단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업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각 시장에서 모든 국가의 경쟁자들이 동시에 경쟁하게 되는 지구촌화로 나아간다는 현상이다. 즉, 특정 시장에서도 특정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모든 기업과 경쟁하거나 경쟁하게 될 잠재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기업은 가능한 모든 경쟁요소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유지하려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낙오되거나 퇴출당할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은 생산, 유통 등의 경영행위를 특정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을 경쟁과 협력의 대상으로 고려하여 구매, 생산, 판매 등의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특정 기업과 사업에 따라서는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등 경쟁과 협력이 상존하는 복잡한 기업간 관계를 형성된다. 또한, 지구촌화는 일물일가의 법칙(한 상품의 가격은 하나임.)이 적용되는 세계시장의 단일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경이 더 이상 국내시장을 국제시장에서 분리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물론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세계화 현상은 국제 무역 및 투자가 자유화

되고 통신, 수송 등의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자유화와 기술발전간의 시너지 효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통신 및 수송기기의 발달은 원거리 지역에서의 영업 및 생산을 더 낮은 비용으로 가능하게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라운드와 지역협정은 거래에 관련된 국가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국제거래를 더욱 쉽게 한다. 시장의 통합과 이에 따른 경쟁의 동시성, 잠재적 경쟁자의 증가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화라는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즉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해외직접투자는 유입기준으로 1982년의 580억 달러에서 1999년에는 8,650억 달러로 15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평균 31.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등 21세기 투자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해외투자 유입의 스톱액은 1999년 현재 4조 8,000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총 GDP의 16%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판매한 액수는 1999년 말 현재 세계 전체 GDP의 45%에 달하고 있다. 모기업의 매출액을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이러한 확장세는 수출입보다도 훨씬 빠른 것으로 이제 세계경제에서 핵심적인 국경간 거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양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보다는 외국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국제적인 기업인수 합병은 1990년에는 1,510억 달러에서 1999년에는 7,200억 달러로 5배 수준

〈표 4〉

세계 해외직접투자 관련 지수 추이

| 항 목 | 경상금액(10억 달러) | | | 연평균 성장률(%) | | | | |
|----------|--------------|-------|--------|------------|-----------|-----------|------|------|
| | 1982 | 1990 | 1999 | 1986-1990 | 1991-1995 | 1996-1999 | 1998 | 1999 |
| 해외투자유입 | 58 | 209 | 865 | 24.0 | 20.0 | 31.9 | 43.8 | 27.3 |
| 해외투자유입스톡 | 594 | 1,761 | 4,772 | 18.2 | 9.4 | 16.2 | 20.1 | 18.8 |
| 국제 M&A's | - | 151 | 720 | 26.4 | 23.3 | 46.9 | 74.4 | 35.4 |
| 자회사 매출 | 2,642 | 5,503 | 13,564 | 15.8 | 10.4 | 11.5 | 21.6 | 17.8 |
| 자회사 부가가치 | 565 | 1,419 | 3,045 | 16.4 | 7.1 | 15.3 | 25.4 | 17.1 |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0에서 발췌 인용.

으로 증가하였다. 전체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중 72%에서 83%로 커졌다.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이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보다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의 확장에 더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증가,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성장이 지속됨으로써 세계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기업의 세계화가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5. 전망과 시사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뉴라운드, 경제력 구조의 변화, 기업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야기되는 사건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각각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지역주의의 확대와 기업의 세계화는 뉴라운

드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의의 확대는 지역협정에 속하지 않는 국가로 하여금 다자간 협정의 필요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뉴라운드가 과거와 달리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뉴라운드를 통하여 제거하려고 한다. 이는 2003년에 투자, 경쟁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이다.

뉴라운드와 지역주의의 확대는 기업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뉴라운드로 국가간 거래가 더욱 자유롭게 되면 그 만큼 기업의 세계화가 촉진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와 경제력 구조의 변화로 기업의 진출 구조도 변화하게 된다. 커지는 시장에 더 많은 해외직접투자와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미자유협정이나 EU의 확대의 예에서 보듯이 기업은 진행 중인 협정이나 변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전략을 수립, 시행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은 이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뉴라운드의 경우 현재 확정된 범

위이상으로,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국가 및 지역간의 경제력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세계 시장 구조도 변모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세계화도 점차 심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앞으로 우리 경제 그리고 세계경제의 동조화현상도 심화되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현상의 하나인 국제단기자금이동이 세계 경제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통상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기업 및 정부는 정보 및 전문성의 축적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누차 강조하였듯이 통상환경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된 이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관심이나 대응은 효율적일 수가 없다. 다만,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

특히, 뉴라운드의 협상 내용이나 지역협정의 내용이 과거와는 범위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하여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은 반면, 개별 사항들은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 등에서는 영향을 크게 미친다. 결국 협상에 참

여하는 정부의 정보 제공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기관이 관련기업에 대해 계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사전에 대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맥주업계에 외국인 투자자가 진출하였고, WTO와는 주세와 관련하여 분쟁을 경험한 바 있어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충분한 경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류를 사용하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나 경쟁업체와 외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으로 경쟁구도가 갑자기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외국업체와의 제휴나 직접투자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동남아, 중국 등과 같이 다소 문화적 거리가 적은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마케팅전략이나 비용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가 지구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서는 점차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명제가 점차 피부에 와닿고 있다.

Love cures people, the ones who receive love and the ones who give it, too.

사랑은 사람들을 치료한다.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할 것 없이

- Karl A. Menninger -